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

박 상 현**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5음·7음·5음·7음·7음 |
| II. 「明治天皇御製謹譯」의 작품 | V. 맺음말 |
| III. 대역(對譯) | |

Key Words : 이광수(Lee Gwang-soo), 명치천황(Emperor Meiji), 명치천황어제(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번역(Translation), 대역(Paginal Translation)

I. 머리말

춘원 이광수. 그는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근대장편소설인 『무정(無情)』을 쓴 근대 작가로, ‘친일(親日)’에 앞장선 변절한 지식인의 대명사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광수는 일제에 협력하는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기에¹⁾, 그것과 관련된 연구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광수가 와카(和歌)를 일본어로 창작하기도 하고, 명치천황(明治天皇)이 손수 지은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를 조선어로 옮기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

1)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1』, 실천문학사, 1986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선집 2』, 평민사, 1995

이광수 지음,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향』, 철학과현실사, 1997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는 1939년 2월에는 「折りにふれて歌へる²⁾」를 『동양지광(東洋之光)』에, 1942년 1월에는 「元日³⁾」를 『신시대(新時代)』에 발표했는데,⁴⁾ 전자에는 이광수의 창작 와카가 9수, 후자에는 7수가 각각 실려 있다. 또한 그는 1941년 1월에는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일본어로 쓴 『동포에 고함(同胞に寄す)』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도 8수의 창작 와카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그는 1941년 5월에 「いくさ船⁵⁾」라는 제목하에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신시대』에 6수를 실었다. 또한 그해 7월에는 같은 잡지에 「明治天皇御製」라는 타이틀하에 명치천황의 와카를 17수, 9월에는 18수를 각각 번역·소개했다.

본고에서는 이광수가 일본어로 창작한 와카와 조선어로 번역한 와카 가운데, 특히 그가 번역한 와카를 우선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테마는 국어국문학계와 일어일문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일 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83. 초판은 1966)과 이경훈의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태학사, 1998) 그리고 최현식의 「이광수와 ‘국민시」(『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가 있을 정도다.⁶⁾ 그리고 이들 연구는 주로 이광수가 왜 「明治天皇御製」를 조선어로 옮겼는가(번역의도 분석), 그리고 그가 번역한 「明治天皇御製謹譯」에는 어떤 노래(歌)가 실려 있는가(번역작품 분석)에 대해 논했다.

번역에 관한 주요한 물음에는 일반적으로 누가 번역했는가, 왜 번역했는가, 언제 번역했는가, 무엇을 번역했는가와 더불어 어떻게 번역했는가가 있다. 이

2) 보통 「折りにふれて」라는 형태로 쓰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折りにふれて歌へる」를 우리말로 옮기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읊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3) ‘새해 초하룻날’이라는 의미.

4) 이때 이광수는 창씨개명한 가야마 미츠로(香山光郎)를 사용했다.

5) 병선 혹은 군함의 의미이다.

6) 참고로 「明治天皇御製」에 관한 일본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행본은 다수 있지만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田中綾「明治天皇御製をめぐる昭和十年代—文部省『国体の本義』等と御歌所所員『明治天皇御製謹話』との対比」『日本近代文学会北海道支部会報』、日本近代文学会北海道支部、2007

広瀬誠「昭和天皇御製の語彙と御詠風—明治天皇御製と対比して」『富山女子短期大学紀要』、富山女子短期大学、1992

가운데 여기서는 이광수가 「明治天皇御製」를 ‘어떻게’ 조선어로 옮겼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明治天皇御製謹譯」의 작품

명치천황은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재위(在位)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 그는 약 10만수에 달하는 와카를 창작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광수는 우선 6수를 골라 조선어로 번역하여 「いくさ船」(A)라는 제목하에 『신시대』⁷⁾에 발표했다.⁸⁾ 1941년 5월의 일이다. 또한 그는 같은 잡지에 「明治天皇御製謹譯」이라는 제목하에 1941년 7월(B)과 9월(C)에 각각 17수와 18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다.⁹⁾ 결국 그는 총 41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번역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 「いくさ船」(1941년 5월)

明治天皇御製

(海軍에 關하여 지으신것 몇 首)¹⁰⁾

(1) 戦にかちてかへりしいくさ船へふもかゝれりしながはの沖

謹譯 역싸흠싸호아 이기고 돌아오는 싸호는배들 오늘도 들어오네 시나가와 앞바다

(2) すゝめてふ旗につれつゝいくさ船かろくも動く浪の上かな

謹譯 나아가리는 旗발의 군호 따라 싸호는배들 가벼이도 달리는 바다의 물결이어

(3) あたの船うちし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む

謹譯 원수의 배를 쳐물려치고 나서 사흘아비들 가없는 난바다의 달마라고 있으리

(4) なみ遠くてらすともしびかゝげつゝ仇まもらむわがいくさぶね

謹譯 멀리 물결을 불들어 비취면서 (기나긴밤에) 敵兵을 지키리라 우리 싸흠하는배

7) 1941년 1월에 신시대사가 대중잡지를 표방하며 만든 것으로, 태평양전쟁이라는 시국적 배경하에 창간되었다. 따라서 이 잡지에 실린 내용에는 전쟁 및 전쟁협력에 관한 글이 적지 않았다.

8) 이광수는 「いくさ船」아래에 소제목으로 ‘明治天皇御製’를, 다시 그 아래에 ‘海軍에 關하여 지으신 것 몇 首’를 두었다. 그리고 번역을 마친 후에는 ‘謹譯 香山光郎’라고 적고 있다.

9) 이광수는 번역을 마친 후에 각각 ‘謹譯 香山光郎’ 그리고 ‘香山光郎 謹譯’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10) 띄어쓰기와 표기 등은 원문 그대로.

11) 괄호 번호는 편의적으로 인용자가 붙인 것임. 이하 같음.

- (5) 港江に万代よばふ声すなりいさををつみし船やいりくる
 謹譯 浦口 머리에 萬歲萬歲 부르는 소리 들리네 勝戰하야 功세운 배들어오나브다
- (6) いさましくかちどきあげて沖つ浪かへりし船を見るぞうれしき
 謹譯 기운차게도 승전鼓喊 지르며 물결 허치고 돌아오는 배 보니 것뵈도 것뵈시고
 謹譯 香山光郎

B : 「明治天皇御製謹譯」(1941년 7월)

義

- (1) 身にあまるおも荷なりとも国の為人のためにはいとほざらなむ
 내힘에 겨운 무거운 짐이라도 나라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는 싫어하지아니하리라
- (2) おのが身はかへりみずして人のため尽すぞひとの務なりける
 제몸을랑은 돌아보지않고서 남을 위하여 힘다함이 사람의 구실인줄 알아라
 をりにふれて
- (3) 天をうらみ人をとがむることもあらじわがあやまちを思ひかへさば
 하늘 원망코 남의 탓을 하올줄 바이없으니 이내 몸의 허물을 돌려생각하오면
 述懷
- (4) ひろき世にたつべき人は数ならぬことに心をくだかさらなむ
 넓은세상에 나설만한 사람은 하잘것없는 일일래어 마음을 괴롭히지않으리
 をりにふれて
- (5) 早苗とるしづが菅笠いにしへの手ぶりおぼえてなつかしきかな
 논에 모내는 農夫의 도롱삿갓 옛날모양을 보는듯한저이고, 그리도 情다워라
 鏡
- (6) 国といふくにのかゞみとなるばかりみがけますらを大和だましひ
 나라라하는 나라들의 거울이 도일 만하게 닦아라 사내들아 야마도의 마음을
 人
- (7) かくばかりことしげき世にたへぬべき人をえたるがうれしかりけり
 오늘날 같이 일많은 세상에 견디어나갈 사람을 얻사움이 깃사온 일이라
 農夫
- (8) 山田もるしづが心はやすからじ種おろすより刈りあぐるまで
 논밭지키는 農夫의 마음 편할날이 없으리 씨를 뿌릴때부터 거둬들이기까지
 運動
- (9) ことしあらば軍のみちにたゝむ身は野をも山をもふみならさなむ
 일있을때면 싸움하는 일 말을 이몸이어든 들에서나 山에서나 달리기 이키리라
 心
- (10) かざらむと思はざりせばなかなかこうはしからむ人のこゝろは
 꾸미리라는 생각곤 아니하면 어지간히들 아름다왔을 것을 사람의 마음이어

光陰如矢

(11)思ふことつらぬかむ世はいつならむ射る矢のごとくすぐる月日に

생각한 일을 일우어지을날이 그 언젠든가 쏜살같이 光陰은 흘러가는데

神祇

(12)いはらぬ神のこゝろをうつせみの世の人みなにうつしてしがな

거짓이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수없는 온 세상사람의게 다 옮겨나주었으면

蟲声非一

(13)さまざまの蟲のこゑにもしられけりいきとしいける物のおもひは

가지가지의 버리지소리로도 알아볼것이, 묵숨있는 萬物の 생각하는 생각을

神祇

(14)わがくには神のすゑなり神祭る昔の手ぶり忘るなよゆめ

우리나라는 검님의 자손이니 검님위하는 예부터 전하는법 잊을시라 꿈에나

을りにふれて

(15)みちみちにつとめいそしむ国民の身をすくよかにあらせてしがな

제길따라서 맡은일 힘써하는 나라백성의 몸성하게 튼튼케 하여주고 싶어라

寄国祝

(16)萬民こゝろあはせて守るなる国にたつ身ぞ嬉しかりける

모든백성이 마음을 모호아서 지키는나라 이나라에선 아픔이 기쁨고 기쁨시고

夢

(17)たらちねの親のみまへにありとみし夢のをしくも覺めにけるかな

사모하옵는 어머님을 뵈옵고 있다고 보던 그꿈이 아깝게도 깨어져 버렸세라

謹譯 香山光郎

C : 「明治天皇御製謹譯」(1941년 9월)

正述心緒

(1)よもの海みなはらからと思ふ世になど波風のたちさわぐらむ

천하백성이 모두 동포형제로 살세상이 어쨌다 바람물결 이리로 설레는고

을りにふれて

(2)久方のあめにのぼれるこゝちしていすゞの宮にまゐるけふかな

높고 거룩한 하늘에 오르옵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즈의 神宮에 뵈옵는 오늘이어

神祇

(3)神垣に朝まゐりしていゝるかな国と民とのやすからむ世を

검님되신데, 아침에 절하삼고, 비옵는 말씀, 나라와 백성들이, 태평하을 세상을

思

(4)国民のうへやすかれとおもふのみわが世にたえぬ思なりけり

우리 백성이, 평안하여지라는 오직 한 생각, 평생에 끄님없는 나의 생각이랴

折にふれて(明治三十七年日露戰爭中)

- (5) 夢さめてまづこそ思へ軍人むかひしかたのたよりいかにと
꿈이 깨어서, 맨처음 생각기는, 우리군사들, 나아가는 곳에서, 오는기별 어떤가
- (6) おのが身にいたでおへるもしらずしてすゝみも行くかわが軍びと
제 몸이 맞아 중한 상처 생김도 모르고서리, 앞으로앞으로만, 나아가는 내군사
- (7) 戦のにはおとづれいかにぞとねやにも入らずまちにこそさて
전장으로로서, 무슨 기별 오나고, 밤이 깊도록, 자리에 들지않고 고대고대하여라
- (8) 石だゝみかたきとりでも軍人みをすてゝこそうち砕きけれ
돌로 쌓은, 굳고굳은 城壘도, 우리군사의, 몸버려 부딪쳐서, 깨뜨려내엿어라
- (9) 久しくもいくさのにはにたつひとは家なる親をさぞ思ふらむ
오랜세월을, 전장에서 싸호는 우리 군사들, 고향에든 어버이, 생각간절할것을
- (10) はからずも夜をふかしけりくにのため命をすてし人をかぞへて
어느사이에, 한밤을 새였어라, 나라위하야, 목숨바친 사람의, 수를 세이노라고
述懷
- (11) 末つひにならざらめやは国のため民のためにとわがおもふこと
마침내에야 아니될줄 있으리, 나라위하야 백성을 위하야서 하는 나의생각이
民
- (12) 国の為いよいよはげめちよろづの民もこゝろをひとつにはして
나라 위하야, 힘쓸 때는 왔어라, 오늘야말로 만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도모아서
誠
- (13) とき遅きたがひはあれどつらぬかぬことなきものは誠なりける
비록 이른수 더딘 수는 있어도, 반듯이 한번, 일우고야 말기는 참된 마음이러라
をりにふれて
- (14) 思ふことつらぬかずしてやまぬこそ大和をのこのこゝろなりけれ
마음먹은일, 일우지아니하고는, 말지않는 이, 야마도 사나히의, 마음이라 하더라
蝸牛
- (15) 世のさまはいかゞあらむとかたつぶりをりをり家を出でて見るらむ
세상형편이, 어떻게 되는가고 저달팽이는, 때때로 집을 나와 돌아보나 보도다
山家鄰
- (16) 谷川のおなじ流の水汲みて鄰へだてぬみやまべのさと
골짜구니에, 흐르는 한 시내의, 물길어먹고, 너나 없이 사노라, 산골의 마을사람
鶴思子
- (17) まへになりうしろになりし雛まもるたづの心のあはれなるかな
앞을 섰다가, 뒤로도 따르면서, 새끼 지키는, 두루미의 마음여, 가엾기도 한지고
歌
- (18) まごゝろをうたひあげたる言の葉はひとたびきけば忘れざりける
숙 마음을, 그대로 읊내내인 참된 노래는, 한번 들어 다시는, 잊혀지않더라
香山光郎 謹譯

선행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던 이광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이광수가 번역했던 명치천황의 와카 곧 「明治天皇御製謹譯」을 논할 때, 주로 ‘왜’ 번역했나 곧 번역의도와 함께 ‘무엇을’ 번역했나 곧 번역작품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럼 우선 ‘왜’ 번역했나에 대한 논의부터 검토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아마도 임종국일 것이다. 그는 『친일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제 말엽의 번역문학-對米戰의 결과인 반미사상으로 영미문학의 번역이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문학의 조선어역과 조선문학의 일어역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국어보급운동과 내선문화 교류에 직결되는 문제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萬葉集』이나 『愛國百人一首』, 『天皇陛下御歌』¹²⁾ 같은 종류의 번역은 직접 **일본정신을 선전하는 역할도 적지 않았다.** 친일문학의 중범적(從犯的) 위치를 점하는 것¹³⁾

임종국의 지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문학작품의 조선어 번역이 활발했는데, 그것은 ‘국어’ 곧 ‘일본어’ 보급과 직결되는 문제로 일본정신을 선전하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친일문학의 중범적 위치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天皇陛下御歌」 곧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과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경훈은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에서 「いくさ船」(A)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일본의 “明治天皇”이 지은 와카(和歌 원문 그대로 인용자주)를 이광수가 번역한 것으로, 천황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의 포즈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봉건적 군주와 근대적 시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시민혁명(……) 등의 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사적 체험의 결여(……)가 초래한 전근대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는 **일본의 천황에 대한 친일적 충성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주라는 역사적 형식에 대한 춘원의 태도문제를 보인다.¹⁴⁾

12)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을 가리킨.

13)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초판은 1966), 1983, pp445-446

또한 그는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에서는 「明治天皇御製謹譯」(C) 가운데서 특히 「折にふれて(明治三十七年¹⁵⁾日露戦争中)」 곧 C의 (5) ~ (10)의 와카를 언급하면서, “**천황에 대한 익찬자(翼贊者) 또는 전쟁에 나간 신하로서의 충성심**”¹⁶⁾을 나타내기 위해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번역하게 됐다고 말한다.

최현식은 「이광수와 ‘국민시’」에서

그에게 와카의 제작 및 번역은 새로운 국민국가/민족의 열망, 그러니까 (조선인의, 인용자주)일본 제국으로의 신민화·국민화를 실현하는 정신의 개조를 의미했다.¹⁷⁾

고 지적한다.

결국 선행연구자는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식민지 조선에 ‘국어’ 곧 ‘일본어’ 보급과 함께 일본정신을 선전하고, 천황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충성심을 표현하며,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자는 「明治天皇御製謹譯」이 어떤 내용이었나 곧 번역작품의 분석, 표현을 바꾸면 수많은 「明治天皇御製」가운데 그가 ‘무엇을’ 번역했는가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급으로는 최현식의 지적이 대표적인데, 그는 바로 앞에서 인용한 논문인 「이광수와 ‘국민시’」에서

실제로 **춘원이 번역한 메이지의 와카는 ‘이에(家)’의 논리에 충실하게 신의 숭앙, 충과 효, 백성에 대한 자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⁸⁾

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광수가 조선어로 번역한 명치천황의 와카인 「明治天皇御製謹譯」에 대해 선행연구자는 그가 ‘왜’ 「明治天皇御製謹譯」을 번역했

14)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p.44

15) 서기 1904년.

1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p.194

17) 최현식 「이광수와 ‘국민시’」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 p.324

18) 같은 논문, p.321

고, 그가 번역한 「明治天皇御製謹譯」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는가에 대해 고찰했다.

그렇다면 이광수는 「明治天皇御製謹譯」을 ‘어떻게’ 조선어로 옮겼을까? 그것을 대역(對譯) 그리고 와카의 리듬인 5음(音)·7음·5음·7음·7음을 키워드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Ⅲ. 대역(對譯)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광수는 1941년 5월부터 9월까지 세 번에 걸쳐 총 41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다. 그런데 무척 흥미로운 것은 그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이미 앞에서 자세히 예시했듯이 먼저 일본어원문을 제시한 후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조선어역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곧 ‘대역(對譯)’을 했다는 말이다.

이광수가 굳이 ‘대역’이라는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와카의 번역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조선어역만 보여주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말이다. 예를 들어 『창조』 창간호인 1919년 2월호에는 와카는 아니지만 운문(韻文)인 일본의 근대시를 소개하는 「일본근대시초(日本近代詩抄)」(1)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근대시 몇 수가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번역 방식이 ‘일본어원문-조선어역’의 ‘대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조선어역만 제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島崎藤村(시마자끼·도오손)

오기쿠

거른머리부드럽고기인

계집애의맘을뉘알리오

사나이입에서나는말을

생각지도말라참되다고

계집애의맘은엳다고만

전해오는것도우섭도다

(……)¹⁹⁾

이밖에도 주요한은 1919년 3월에 「일본근대시초」(2)를 『창조』에, 황석우는 1920년 7월에 『폐허』에 각각 일본의 근대시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실었다. 또한 김억은 1924년 10월에 『영대(靈臺)』에, 1927년 7월에는 『중외일보(中外日報)』에 일본의 근대시를 조선어로 옮겼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주요한, 황석우, 김억 모두가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광수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왜 일본어원문을 표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은 많은 참조가 된다. 그가 「明治天皇御製謹譯」 연재(A, B, C)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41년 5월이었는데, 바로 그 시기인 1941년 5월 10일에 발표한 「내선일체수상록」에서 이광수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모든 조선인이여. 오늘부터 국어(‘일본어’를 가리킴. 인용자주)를 배우자. (……)
황민화의 제일 요건은 국어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⁰⁾

고 권유한다. 곧 ‘국어’인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황국신민화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광수는 1941년 5월 당시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해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이유는 일본어를 모르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와카에 담겨 있는 일본정신을 조선어로 전달하여 그들을 황국신민화 시키기 위해서였고, 이런 번역 의도는 번역문에서 조선어역이 담당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이광수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면서 일본어 보급에도 신경을 썼는데, 그 역할은 번역문에서 ‘일본어원문’이 수행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광수는

19) 별꽃 「日本近代詩抄」(1) 『창조』, 창조사, 1919, p.76

참고로 ‘별꽃’은 주요한의 필명이다.

20) 인용은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수록, 평민사, 1995, p.245

번역문에서 조선어역과 더불어 일본어원문도 함께 제공하는 ‘대역’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역’은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번역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한다. 예를 들어 이 번역 방식은 『조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광』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월호부터 「국어강좌(國語講座)」 곧 ‘일본어 강좌’라는 코너를 만들어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를 보급하고자 힘썼는데, 이 잡지의 1944년의 9월호에는 일본의 근대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유명한 시(詩)가 아래와 같이 ‘일본어원문-조선어역’의 대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アメ
雨ニモ負ケズ

宮沢賢治

アメ
雨ニモマケズ

비한테도 안지고

風ニモマケズ

바람에도 안지고

雪ニモ夏ノ暑サニモマケヌ

눈한테도 여름더위에도 안지는

丈夫ナカラダヲモチ

튼튼한 몸을 가지고

欲ハナク

욕심은 없고

(……)

(……)²¹⁾

그런데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면서 일본어원문도 제공하는 ‘대역’ 방식을 채택해야만 했던 필연성에는 당시의 일본어 보급률 곧 일본어가 가능한 자의 비율이 크게 관여했다. 즉 그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던 1941년은 일제강점기의 후반기였다. 하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 보급률은 예상외로 그리 높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1943년 12월에 발간한 『조선사정』의 부록에 수록된 「참고통계표」²²⁾와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공동으로 편찬한 1945년도판 『조선연감』²³⁾에 의하면, 일본어 보급률 곧 일본어가 가능한 자란 ‘일본어가 약간 가능한 자(稍解し得るもの)’와 ‘일상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普通會話に差支なきもの)’를 포함한 수치였다. 통계가 처음 시작된 것

21) 번역자 미상 「國語講座」 『조광』, 조광사, 1944, p.52

22) 조선총독부 편 『조선사정』, 조선총독부, 1943, p.9

23)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공편 『조선연감』 1945년판, 경성일보사, 1945, p.130

은 1913년인데 당시 조선인 인구는 약 1,500여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일본어가 가능한 자는 약 92,000여 명으로 0.61%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어가 가능한 자가 총 인구 대비 10%를 넘긴 것은 1938년이였다. 당시 조선인 인구는 약 2,200여만 명이었고, 이 중 일본어가 가능한 자는 270여만 명이였다. 그리고 1942년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자가 19.94%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인 인구는 약 2,500여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일본어가 가능한 자는 약 510만 명 정도였다.²⁴⁾

따라서 일본어 보급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로 일본문학작품의 번역에서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제시하는 ‘대역’이라는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이처럼 1941년을 전후로 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 보급이 더욱 절실하게 된 데에는 1937년의 중일전쟁 이후 전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병사의 충원이 제국일본에게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제의 병력 동원의 대상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인이 주목 받게 되었고, 그것은 제도화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즉 1938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 1943년에는 ‘해군특별지원병제도’ 및 ‘학도지원병제도’와 같은 소위 ‘특별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1943년에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만 20세의 조선인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었고, 1944년부터는 ‘징병제’에 의한 강제동원을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전장에서 일본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조선인 병사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고²⁵⁾, 이런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형태가 바로 일본문학작품을 조선어로 옮길 때 번역문에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제시하는 ‘대역’이었다.

24) 세키 마사아키(関正明)는 당시의 일본어 보급률을 알려주는 여러 통계수치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배자측이 만든 자료이기에 그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関正明 『日本語教育史研究序説』、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1997、p.22

25) 세키 마사아키도 이와 같은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시 널리 퍼졌던 다음과 같은 표어였다고 말한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어(=일본어) 생활을 실행하자”·“내선일체 우선 국어부터”·“국어로 나아가자 대동아”

上掲書、p.22

IV. 5음·7음·5음·7음·7음

이광수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와카의 리듬인 5음(音)·7음·5음·7음·7음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戦にかちてかへりしいくさ船けへふもかゝれりしながはの沖
 싸흠싸호아(5) 이기고 돌아오는(7) 싸호는배들(5) 오늘도 들어오네(7) 시나가와 앞
 바다(7)

あたの船うちし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む
 원수의 배를(5) 쳐몰려치고 나서(7) 사흘아비들(5) 가없는 난바다의(7) 달바라고
 있으리(7)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와카의 조선어역이 항상 위와 같이 와카의 리듬을 중시하는 출발언어중심주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거꾸로 우리의 리듬을 중시하는 도착언어중심주의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 사정은 번역가이자 시인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억이 잘 보여준다.

그는 1943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으로 알려져 있는 『만엽집(万葉集)』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만엽집초역(万葉集鈔譯)」이라는 타이틀로 연재했다. 또한 그는 1943년 7월 20일부터 같은 신문에 만엽(万葉)시대 가인(歌人)부터 에도(江戸)시대 가인까지의 와카 100수를 번역한 「선역애국백인일수(鮮譯愛國百人一首)」도 연재했다. 그는 이들 와카를 도착언어중심주의로 번역했다.

먼저 「만엽집초역」에 번역·소개되어 있는 와카부터 살펴보자. 이광수와는 다른 의미로 김억에게도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철저한 규칙이 있었다. 31음 곧 5·7·5·7·7로 된 와카를 초장이 3·4·3·4이고 종장이 3·5·4·3으로 끝나는 양장(兩章)시조형으로 번역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권4·639²⁶⁾

이몸을(3) 아니넛고(4) 생각을(3) 하는탓가(4)

꿈속을(3) 그님이비여(5) 잠못이뤄(4) 하노라(3)

한편 이와 같은 규칙은 「선역애국백인일수」에 번역·소개되어 있는 와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권2·235²⁷⁾

우리님(3) 높고크사(4) 現神이(3) 그오시매(4)

구름속(3) 우레山우에(5) 게오실宮(4) 집시네(3)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광수로 돌아가자. 그는 왜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5·7·5·7·7이라는 일본 와카의 리듬을 그대로 살려 조선어로 옮겼던 것일까? 그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왜 5·7·5·7·7로 번역했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첫째, 이광수는 『만엽집』등을 통해서 와카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스스로 직접 와카를 창작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와카의 리듬에 친숙해 있었고, 그 리듬이 내면화되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와카의 리듬을 살려 조선어로 번역하게 되었다.

이광수가 『만엽집』과 그것에 실려 있는 와카에 친숙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인용했던 『동포에 고향』이라는 글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발언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병합 30주년! 조선 이천삼백만 민중은 메이지(明治) 천황의 고마우신 뜻에 의해 일본의 신민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민중은 우리 임금님²⁸⁾을 위해, 바다에

26) 원문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문만 제시.

吾背子かく恋ふれこそぬばたまの 夢に見えつゝいねえすけれ(吾背子我 如是恋礼 許曾 夜于玉能 夢所見管 寐不所宿家礼)

인용은 박경수 편 『안서 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1987, p.464에 의함. 이하 같음.

27) 大君は神にしませば天雲の 雷の上に廬せるかも

같은 책, pp.485-535

28) 이때 ‘임금님’이란 ‘천황’을 가리킴.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는 풀이 무성한 시체가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 (소화 15년 1월 7일)²⁹⁾

위 인용문에서 강조 표시한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는 풀이 무성한 시체’라는 표현은 『만엽집』의 대표적인 가인 중의 하나인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의 와카인 “海行かばみづくかばね 山行かばくさむすかばね(권18·4094)”의 조선어역이다.

또한 이광수가 와카의 리듬에 친숙해 있었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일본어로 와카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그는 1939년 2월에 『동양지광』에 「折りにふれて歌へる」라는 제목하에 일본어로 된 와카 9수를 창작하여 발표했고, 1942년 1월에는 『신시대』에 「元日」라는 타이틀하에 7수의 와카를 일본어로 게재했다. 이들 와카 가운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전자에 실린 노래만 인용한다.

「折りにふれて歌へる」³⁰⁾

(1) 天地のいつくはわが家ならざらむ仰ぐ御光果てしあらねば³¹⁾

(2) 好き人の文読む程に何時となく念仏申す身となりにけり³²⁾

(3) 韓土の二千萬の民草と君わが君と仰ぎまつらむ³³⁾

(4) とこしへの濁りに喘ぐ黄河の流も澄みて君が代となる³⁴⁾

(5) 常闇の我が魂の夜も明けぬらむかの雲の端に映ゆる曙³⁵⁾

(6) 恩愛の覇絶ちてぞ恩愛のえにしのものを救ひこそせめ³⁶⁾

(7) われと云ふかたきを討ちて四十八年そのたゝかひは去年も今年も³⁷⁾

29) 인용은 이광수 저,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함』, 철학과현실사, 1997, p.119에 의함.

30) 인용은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p.13에 의함. 이하 같음.
덧붙여 번역은 편역자인 이경훈이 한 것임.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 없음.

31) 天地 어디는 우리 집 아니라 진정 우러러 볼 빛이 있다면

32) 좋은 사람의 글 읽고 문득 念佛 아뢰는 몸 되었네

33) 韓土의 二千萬 民草와 함께 임금님, 우리 임금님하고 우러러 받들도다

34) 영원한 탁류에 험찍이는 黄河의 흐름도 맑아져 天皇의 나라가 되노라

35) 영원히 어두운 내 영혼의 밤도 밝힐 듯 구름 끝에 빛나는 曙光

36) 恩愛의 굴레 끊고 恩愛의 錄 닿는 것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37) 나라고 하는 敵을 쳐 사십팔년, 그 싸움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8) まごゝろのしめす^{まこと}眞にひたすらにわれは生きなむその日その日を³⁸⁾

(9) ひととせを又なすなくて過ごしけりあくる年はと又誓ひつゝ³⁹⁾

그리고 이광수는 앞에서 인용했던 『동포에 고향』이라는 글에서도 일본어로 와카를 창작하여 실었는데, 「조선신궁 신전에서(朝鮮神宮大殿にて)」라는 제목 하에 3수, 「지원병을 기리며(志願兵をたたへて)」라는 타이틀하에 5수, 곧 총 8수를 지었다.⁴⁰⁾

둘째, 이광수는 명치천황이 손수 지은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라는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광수로 하여금 「明治天皇御製」를 와카의 리듬대로 곧 축어역하게 했다고 추정된다. 물론 그에게도 서두수와 같은 생각, 즉 와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와카의 형식까지도 식민지 조선에 이식시키고 싶었을 수도 있다.

서두수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경성제국대학에서 당시의 ‘국문학(國文學)’인 ‘일본문학(日本文學)’을 전공한 인물이다. 그런 그는 1942년 11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매일신보』에 『만엽집』에 실려 있는 4500여 수(首)의 와카 가운데서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한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을 연재했다.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서두수는 와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게 고민했는데, 그런 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병사의 노래’를 다음과 같이 일본 와카의 5・7・5・7・7에 따라 조선어로 번역한다는 것이었다.

권20・4341⁴¹⁾

서슴는고야(5) 미에리싸그곳엔(7) 아비홀로니(5) 길고긴이내갈길(7) 참아못가서슴네(7)⁴²⁾

38) 참된 마음 가리키는 眞에 一念으로 나는 사노라 그날 그날을

39) 이루지 못 하고 또 한 해 보내는구나 來년에는 하고 또 맹세하면서

40) 지면 관계상 8수의 와카를 인용하지는 못했다. 전문(全文)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이광수 저,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향』, 철학과현실사, 1997, pp.299-300

41) 원문은 아래와 같다.

橘の 美衣利の里に 父を置きて 道の長道は 行きがてぬかも

42) 서두수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942(11월 5일자)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어찌튼 될수잇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적어도言數에잇서서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싸히 그려보게한것이 이제실으라는 拙譯이다.⁴³⁾

그렇게 때문에 서두수는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연재할 때, 「防人歌(사씨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이라고 굳이 밝힌 것이다. 이때 ‘치졸한’이란 표현은 서두수가 자신의 번역 작업을 겸손하게 나타낸 것이었고, ‘이식’이란 말 그대로 와카의 5·7·5·7·7이란 형식을 식민지 조선에 옮겨 심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광수는 「明治天皇御製」를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明治天皇御製 : 치졸한 이식」이라 하지 않고, 「明治天皇御製謹譯」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謹’이란 ‘근신(謹慎)’이라는 숙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가다’·‘조심하다’의 의미이다. 결국 ‘근역’이란 삼가고 조심하면서 번역했다는 말이고, 굳이 ‘근역’을 붙인 것은 「明治天皇御製」라는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왜냐하면 식민지 조선인에 불과한 이광수가 조선어로 옮기는 대상이 다른 아닌 명치천황이 직접 지은 「明治天皇御製」이기 때문이다.

제국일본의 천황에 대한 이광수의 존경과 경외는 일본인 작가인 다나카 히데미츠(田中英光)가 「조선의 작가(朝鮮の作家)」라는 글에서 그를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 너무나도 잘 드러난다. 즉 다나카가 유진오와 함께 이광수의 집에 들러 술을 먹게 되는데, 그때 이광수가 다나카에게 최근에 쓴 자신의 일기를 보여준다. 그런데 1940년 이후에는 이광수의 일기에 일본어로 창작한 와카가 많이 등장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와카의 대부분이 ‘대군(大君)’ 곧 ‘천황’으로 시작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와카가 나오자 이광수가 단좌를

43) 같은 신문, 11월 2일자

44) 「明治天皇御製」라는 텍스트에 대한 존경과 경외로 「明治天皇御製」에 ‘謹’자를 붙인 것은 이광수만이 아니었다. 내지(内地)에서 일본인에 의한 출간된 책에도 있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다.

大坪草二郎 『明治天皇御製謹訳』、岡村書店、1936

千葉龍明 『明治天皇御製謹話』、大日本雄辯會講談社、1938

하며 자세를 바로잡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유진오와 이광수 그리고 다나카 히데미츠가 이광수의 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인용 자주) 허가 약간 고부라진 듯했으나 가야마(이광수는 香山光郎로 창씨개명했다, 인용 자주) 씨는 근래 이삼 년 써오던 일기를 보여주었다. 옛날 것은 한문으로 씌어졌으나 근년으로 오면 (……) 특히 흥미 있는 것은 쇼와 15년(1940) 이후의 것에는 전부 가일기歌日記라 해도 좋을 정도로, 단가 투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 놀라운 것은 그 노래의 대부분이 ‘대군大君의’로 시작되는 투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놀라운 것에는, (……) 가야마 씨는 이러한 노래가 나올 무렵이 되자, 단좌하여 지금까지의 취태를 갑자기 고쳤다는 점이다. 물론 유진오 씨도 나도 무릎을 바르게 하여 가야마 씨가 읽는 애국가를 배청拜聽했다. 옛 지사는 취해서 준황 애국에 대해 비분강개했다고 한다. 그러한 일을 나는 생각하였고, 나는 가야마 씨의 자세를, 바른 취태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⁴⁵⁾

V. 맺음말

우리들은 춘원 이광수를 일제강점기에 제국일본에 협력했던 대표적인 문인 이자 비평가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문필 활동 가운데에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분야가 있다. 이광수의 와카 창작과 와카의 조선어역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본고에서는 특히 후자에 대해 주로 고찰해보았다.

이광수는 1941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신시대』에 「明治天皇御製(明治天皇御製)」이라는 타이틀로 명치천황의 와카 41수를 조선어로 옮겨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했다. 그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일본정신을 선전하고, 천황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충성심을 표현하며, 일본 제국의 신민화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어떻게’ 옮겼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테마를 ‘대역’과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키워드로 살펴보았다.

45) 인용은 김윤식 『개정·증보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출판사, 1999, p.352에 의함.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을 때 굳이 ‘일본어원문-조선어역’이라는 ‘대역’ 방식을 취한 것은 이것이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일본어 보급에 적합한 번역 방식이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조선어역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담당하게 되었고, 일본어원문은 일본어 보급을 맡게 되었다.

한편 그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했을 때 굳이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준수하면서 조선어역을 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와카 창작 등을 통해 와카의 리듬이 이광수에게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⁴⁶⁾ 둘째, 그는 명치천황이 직접 지은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라는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있었고, 그런 그의 존경과 경외는 ‘근역’이라는 어휘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명치천황이 손수 지은 「明治天皇御製」를 와카의 리듬대로 ‘축어적’으로 옮기에 되었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공편 『조선연감』1945년판, 경성일보사, 1945
 김윤식 『개정·증보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출판사, 1999, p.352
 번역자 미상 「國語講座」『조광』, 조광사, 1944
 별꽃 「日本近代詩抄」(1)『창조』, 창조사, 1919
 서두수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매일신보』, 1942(11월 5일자)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_____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대학사, 1998
 이광수 저,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향』, 철학과현실사, 1997
 이연숙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2012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단, 초판은 1966년 8월), 1983
 조선총독부 편 『조선사정』, 조선총독부, 1943

46) 최현식도 「이광수와 ‘국민시’」에서 이광수가 일본어로 창작한 와카를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와카들은 국민정신의 개조와 **일본정신의 내면화를 향한 수행의 자세를 모범적으로 예시한다.**”

최현식 「이광수와 ‘국민시」」『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 p.318

또한 이광수의 일본정신의 내면화는 앞에서 예시한 다나카 히데미츠의 「조선의 작가」에서 묘사된 이광수의 모습, 곧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현식 『이광수와 ‘국민시’』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8

関正明 『日本語教育史研究序説』、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1997、p.22

■ 접수일 : 2013년 10월 31일
심사개시 : 2013년 11월 06일
심사완료 : 2013년 12월 03일
게재결정 : 2013년 12월 04일

〈要旨〉

春園李光洙の「明治天皇御製謹譯」研究

李光洙は1941年5月から9月にわたって、「明治天皇御製」を朝鮮語で訳した。「明治天皇御製謹譯」がそれである。本稿では翻訳のやり方に焦点を当てて、「明治天皇御製謹譯」を分析してみ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まず、李は「明治天皇御製」を訳した際、翻訳文に朝鮮語翻とともに原文も提供するといった「対訳」を行った。それは植民地の朝鮮人に日本の精神を植えつけると同時に、日本語も普及したかったからだ。次に、彼は和歌のリズムを尊重しつつ訳した。それは「明治天皇御製」に対する尊敬と敬意の念を現わしたかったからである。

A Study of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Translated by Lee Gwang-soo with Respect

Lee Kwang-soo translated waka of Majesty Meiji Tenno into Korean and published it in ‘Sinsidae(The New Era)’ under the title of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He translated waka of Majesty Meiji Tenno into Korean for the following purposes a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Unfortunately,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find out how Lee Gwang-soo translated waka of Majesty Meiji Tenno into Korean. Therefor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it through analysis on paginal translation and 5-7-5-7-7 pattern of waka. Then,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Lee Kwang-soo selected ‘paginal translation’ to translate waka of Majesty Meiji Tenno into Korean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a perfect choice to facilitate hwanguk sinminhwa and spread Japanese language. Meanwhile, he adhered to the 5-7-5-7-7 pattern of waka of Majesty Meiji Tenno with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attern of the Japanese poetry was already internalized in him. Second, he had great respect for the so-called divine text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Therefore, he translated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using the syllabic pattern of waka.